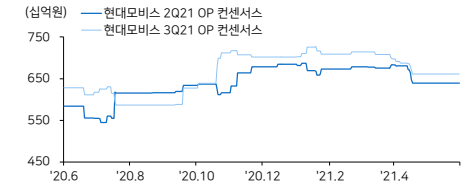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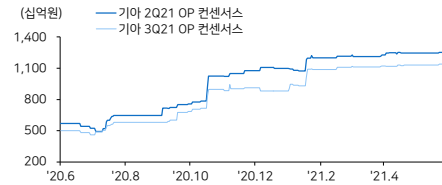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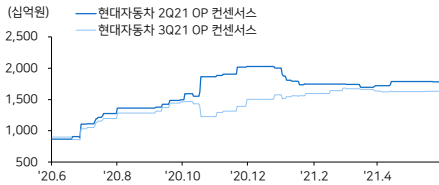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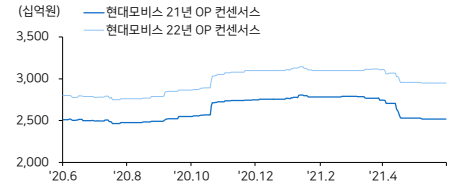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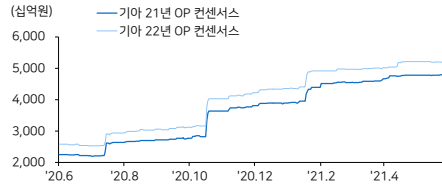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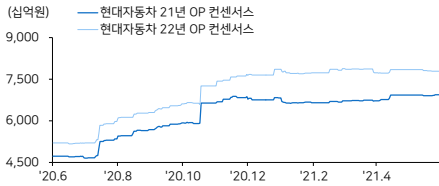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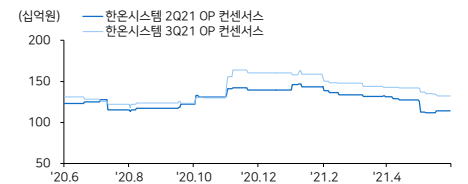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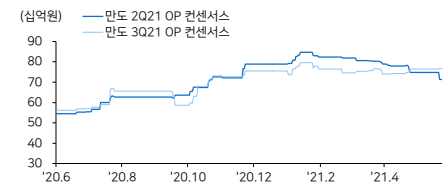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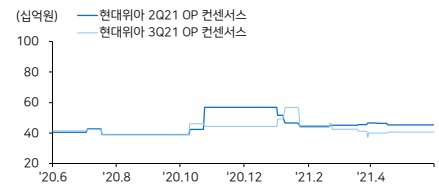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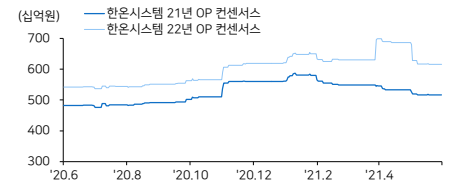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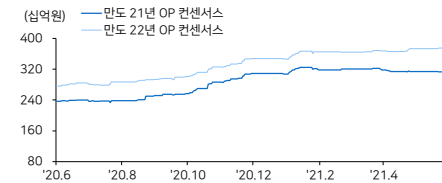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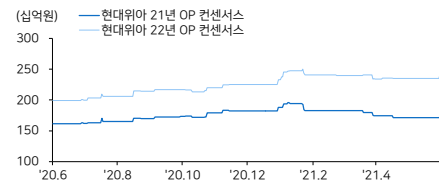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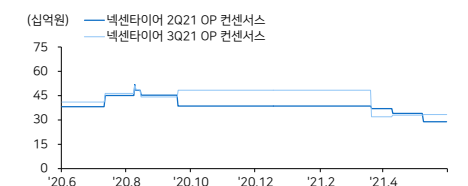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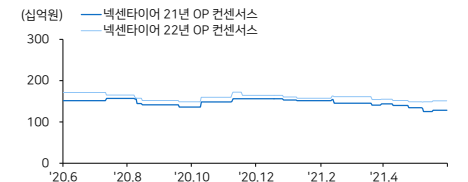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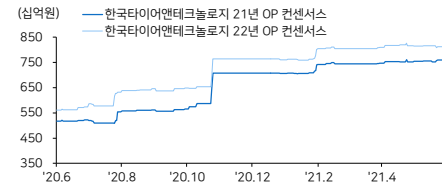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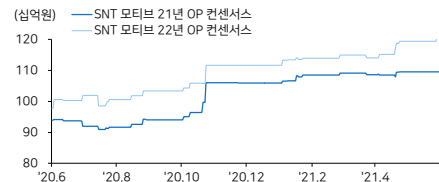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정의선, 두 달 만에 출장길...이번엔 동부로 (한국경제)

정의선 회장은 이번 미국 동부 출장에서 뉴욕, 보스턴 등 동부 지역을 약 1주일 돌며 현장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4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정 회장이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  
<https://bit.ly/35eiNuD>

### 현대차 합작 모셔널, 로보택시 기술 트랙 부문 확대 시사 (THE GURU)

칼 이아그넬라 모셔널 CEO는 TechCrunch's 2021 Mobility Event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트랙 부문으로의 사업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모셔널은 올 2월 라스베이거스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다수의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성공리에 마친.  
<https://bit.ly/3ghK9eu>

### 모빌리티업계 전기차 도입 확대, 카카오톡 티맵 소카 선정 경쟁 치열 (비즈니스포스트)

모빌리티업계 카카오톡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소카는 전기차 마케팅을 강화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각각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 전기차 도입을 확대하는 분야도 택시호출, 배민게이전, 차량공유 등 폭넓게 진행됨.  
<https://bit.ly/3cGU0si>

### EV 픽업트럭 본사...미국 전기차 시장 '개입체인지' (THE GURU)

미국 내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인 EV픽업트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중. 미국 픽업트럭 시장을 이끌던 픽3 포드, GM, 스텔란티스는 물론 테슬라, 리비아, 로스타운 등 전기차 업체들도 EV픽업트럭을 공개하거나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  
<https://bit.ly/3xodJOZ>

### 기아차, 11월부터 로봇 입고 공장서 일한다...국내 첫 도입 (매일경제)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오는 11월 국내 공장 내 생산라인에 웨어러블 로봇을 적용할 계획.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1차 현장 테스트를 실시했고 올해 2월 말 제작사 현대로템과 개선사항을 논의함.  
<https://bit.ly/3znsh9l>

### 10조 고가매입 논란 '현대차 GBC 부지'...명값 22조로 올랐다 (한국경제)

서울 강남권역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부지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명값이 현대자동차그룹의 매입 시점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됨. 7년 전 매입 당시에는 '너무 비싸게 샀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던 바 있음.  
<https://bit.ly/2U7FUd7>

### 마포서 수서까지 5분... 'UAM이 부동산 시장도 바꿀 것' (조선일보)

독일 '필리움', 미국 '조비항공', 국내 '한화시스템', '현대차' 등은 eVTOL(수직 이착륙 소형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중. 증권·투자업계에서는 UAM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분석도 제시됨.  
<https://bit.ly/3zrmj6pT>

### 테슬라, 글로벌 자율주행테스트 추진...인력 채용 '속도' (THE GURU)

테슬라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차시스템을 테스트할 인력을 채용하는 등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에 속도를 내는 중. 미국을 벗어나 해외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인력 채용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  
<https://bit.ly/3vfMJWR>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